반도체 다음은 누구… 2차전지·바이오·자동차 '바통 경쟁'

증권가가 꼽은 내년 유망주는
코스피 목표치 최고 1만500p 제시
LG엔솔 vs 삼성전기… 시총 3위 대결

#.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서 주식 한 친구가 '따블(더블)' 번 것 보고 타이밍만 노리고 있는 '예비 개미' 주부 이모(40)씨, 환율 더 떨어지면 달러 좀 바꿔놓으려는 사업가 김모(72)씨, 이제는 내 집 살 기회를 영영 놓쳐버린 건지 고민이 많은 회사원 유모(35)씨….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와 친환경 에너지 정책 변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국내 증시의 차기 주도 업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년 하반기 금융 및 자본 시장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똑같은 주식이 저평가 받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지만, 코스피는 올해 6월 '9천피'(지수 9000)를 찍은후 지난 13일 5290선까지 밀려났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우려와 젠슨 황 스캔들 등 각종 악재가 부각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날개 없는 추락을 잇고 있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등 글로벌 각국 중앙은행은 긴축통화정책을 펴고 있다.

투자 타이밍을 놓친 사람도, 일단 유동성 장세에 올라타긴 했는데 언제 어떻게 내릴지 고민인 사람도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궁금하기만 하다. 내년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까. 국내 증권사들에게 내년 유망 투자처를 물었다. 전문가들은 IT·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돈이 몰릴 것으로 봤다.

◆"그래도 주식… 유동성에 올라타라"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반도체가 2027년 증시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15일 신영증권에 따르면 2027년 코스피 지수 이익의 77%는 반도체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으로만 보더라도 코스피 영업이익 비중은 2024년 23%에서 2025년 30%, 2026년 상반기 57%까지 높아졌다.

다만 2027년 하반기 국내 증시는 전분기 대비 이익 증가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속도 조절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의 가파른 증익 흐름을 이어받아 이익 공백을 방어할 수 있는 후속 주도 업종의 체력 검증이 지수 방향성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증권사 김효진 연구원은 "주가의 쏠림은 반도체 급락으로 풀린 것처럼 보이지만 지수 이익의 4분의 3이 반도체에서 나오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주도주 이익이 정체돼 나타나는 순환매가 지수를 올리려면 후속 업종의 이익이 직전 주도주의 공백을 메울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도 예상된다.

하나증권은 2027년 상반기에는 2차전지와 IT 하드웨어,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와 자동차 업종의 이익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 순이익 증가율은 2027년 상반기 기준 IT하드웨어가 140.5%로 성장을 선도하고, 2차전지는 하반기 193.5%의 증익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와 자동차가 각각 17.8%, 13.4%의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반기에는 이익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LG에너지솔루션과 높은 이익 증가율이 예상되는 삼성전기 간의 시총 3위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며 "하반기에는 장기간 주가가 부진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기자본이익률(ROE)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보유한 현대차가 시총 3위 자리를 두고 각축을 벌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비반도체 업종이 반도체의 주도권을 단기간에 대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나증권은 반도체의 이익 개선·확장 사이클을 평균 8.1개월, 비반도체를 5.3개월로 분석했다. 비반도체 업종의 이익 성장률이 높아지더라도 개선 흐름이 얼마나 오래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블루웨이브(민주당 압승)' 현실화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도 변수다. 민주당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사업과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사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존재한다. 다만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풍력·태양광은 2028년부터 48E 세액공제가 사실상 종료되며, 의회가 정권을 잡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감안하면 세액공제의 즉각적인 복원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자동차 관세 역시 의회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더라도 관세 정책을 단기간에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블루웨이브 우려털고 코스피 1만 갈까

수익 실현할 타이밍을 고민하는 투자자도 많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2027년 코스피 연말 목표치를 9000포인트로 제시한다"며 "연간 지수 밴드는 6000~1만500포인트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반기에는 6000~8000포인트, 하반기에는 7000~1만500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년 코스피 목표치를 8300으로 제시했다. 이 증권사 김대준 연구원은 내년 위험 요인으로 프랑스의 재정 불안, 중동발 유가 상승, AI 크레딧 리스크, 엔 캐리 청산, 하이퍼 스케일러의 자본 지출(CAPEX) 둔화, 자산간 상관성 변화 등을 꼽았다. 그는 "증시는 변동성 국면에 재진입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의 모니터링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키움증권은 내년 예상 등락 범위를 5100~8100으로, 신한투자증권은 5000~8000으로 제시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퇴직연금 전환 15만명… 증시 하락장에 '울상'

올 6~7월 DC형 전환 가입자 181%↑
원리금비보장 상품 평균 수익률 35%p↓

#.12년 차 직장인 박모(40)씨는 지난 6월 퇴직연금을 확정급여(DB)형에서 확정기여(DC)형으로 바꿨다. 박씨는 12일 "당시 DC형으로 바꾼 분들이 수익률 자랑을 많이 하고, 100% 수익률을 낸 사람도 있다는 소문에 너도나도 바꾸는 분위기였다"며 "따라 바꿨는데 지금 수익률이 -30%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익이 나면 새 집을 사는데 보탤 생각이었는데 이젠 꿈도 못 꾸는 실정이다. 그냥 DB형으로 둘 걸 후회한다"고 토로했다. 퇴직연금을 직접 굴리겠다며 DC형으로 옮긴 직장인들이 증시 급락으로 '멘붕'(멘탈 붕괴)에 빠졌다. DB형은 퇴직 전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근속 기간에 따라 정해지고, 적립금은 회사가 운용한다. DC형은 회사가 납입한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그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진다.


올해 3분기 퇴직연금사업자 39곳의 DC형 원리금비보장 상품 수익률은 평균 19.97%로 2분기(55.47%)보다 35.5%포인트 떨어졌다. /ChatGPT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15일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공시를 분석한 결과, 올 3분기 퇴직연금사업자 39곳의 DC형 원리금비보장 상품 수익률은 평균 19.97%로 2분기(55.47%)보다 35.5%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DB형 원리금비보장 수익률은 22%에서 8.98%로 13.02%포인트 낮아지긴 했지만, DC형보다는 낙폭이 덜했다.

개인이 운용하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건 코스피와 반도체 주가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집중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계좌 내 보유량 상위 ETF를 보면, 1위는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2·3위는 각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한다. 상위 10개 중 3개가 반도체 관련 ETF였다.

걱정스러운 점은 코스피가 고점을 찍은 지난 6월 이후 DC형으로 옮긴 가입자는 15만 명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7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가입자는 14만971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2% 늘었다. 코스피는 12일 5342.73에 마감해 6월 22일 종가 고점(9114.55)보다 41.38% 떨어졌다.

전환이 몰린 시기는 코스피 고점과 겹친다. 코스피는 6월 22일 9114.55에 마감해 종가 기준 고점을 찍은 뒤 내림세로 돌아섰다. 13일 종가는 5290.53으로, 고점보다 41.96% 낮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금투자의 핵심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위험자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투자 기간과 위험 감내 수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이를 지속해서 관리하는 데 있다"며 "주도주의 성과를 따라가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자산배분 체계 안에서 ETF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퇴직연금 적립금은 6년 만에 감소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보면 올해 3분기 말 퇴직연금 운용사 43곳의 적립금은 총 542조1214억원으로, 지난 6월 말 553조8779억원보다 11조7565억원(-2.1%) 감소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9천피 때 산 ELS, 만기 다가오자 '속앓이'

증시 급락에 원금 손실 공포

#.회사원 김광중씨(가명)는 지난 6월 코스피200 지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1억원을 투자했다. 1년 이내 만기까지 기초자산 가격이 85%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9000선을 웃돌던 코스피는 지난 13일 5290선까지 밀려났다. 김씨는 기초자산이 추락하면서 조기 상환 조건에 실패해 자금이 묶인 데다 만기에 '손실 폭탄'을 안게 될까 봐 걱정이 태산이다.

코스피 지수와 반도체 투톱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와 연동한 ELS에 돈을 넣은 투자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하자 '9천피'(코스피 9000)를 웃돌던 코스피가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한 탓이다. 지수가 떨어지면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조기 상환을 하지 못해 자금이 묶이거나 만기 때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발행된 만기 1년 이하 ELS는 DB해피플러스2282(공모·지난 9월 만기)를 제외하면 총 94개, 발행금액은 1802억원에 달한다.

올해 1~6월 발행된 상위 10개사(발행액 기준)의 전체 ELS 발행 규모 12조여원(공모·사모 포함)의 약 1.5% 수준이다.

이 중 6월 발행된 만기 1년 이하 ELS가 문제가 되는 것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인 9000선 안팎에서 발행된 이후 증시가 급락한 데다 만기까지 임박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2일 9114.55(종가)까지 치솟았던 코스피는 지난 13일 5290.53에 거래를 마쳤다. 하락폭은 42%로, 지난 13일 종가는 고점의 58%에 불과하다.

지난 6월 발행된 1년 이하 94개 ELS 중 테슬라, 마이크론 등 해외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ELS를 제외하고 국내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상품은 76개, 총 발행금액은 1786억원이다.

이들 76개 ELS는 모두 코스피200(48개), 삼성전자(38개), SK하이닉스(42개)를 기초자산(중복 포함)으로 한다.

당장 12월에는 12개 종목 197억원 규모의 만기가 예정돼 있고, 내년 1월부터 7월 초까지는 64개 1539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지수가 꾸준히 하락해 조기 상환에 실패하면서 투자금도 발이 묶였다. ELS는 정기적으로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 조건을 충족한 경우 조기 상환되지만, 조건에 미달하면 상환이 미뤄진다. SK하이닉스와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NH투자증권24866(공모)은 지난 9월 기초자산 평가가격이 기준가의 85%를 밑돌면서 조기 상환되지 못했다. 여기에 지난 13일 기준 SK하이닉스는 122만4000원, 코스피200은 824.78로, 기준가의 45.7%와 60.3%에 그치고 있다.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삼성증권31165(사모·연 15.2%)도 내달 24일까지 기초자산 지수가 684.81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조기 상환되지만, 그렇지 않고 낙인선(기준가 35%)인 479.36 미만으로 떨어지면 원금을 잃을 수 있다. /김아영 기자 aykim@